

# 광주 학생들, 세계에 '광주정신' 알린다

광주시교육청, 글로벌리더 국제교류  
덴마크·아이슬란드 에너지기관 탐방  
독일·이탈리아·베트남·중앙아프  
5·18운동 플래시몹 공연도 선보여

광주 중·고교생이 유럽,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광주정신' 알리기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생태전환 글로벌 리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덴마크 지역난방공사 과학센터, 주 덴마크 대사관, 덴마크 공과대학(DTU),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대안교육기관 '에프터스쿨레', 아이슬란드 지열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 기관 등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 정책을 체험한다.  
특히 23일부터는 이정선 교육감이 동행해 5·18로 상징되는 광주정신과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은 현지학생들과 기후변화 관련 발표,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하며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5·18 플래시몹 공연도 선보인다.  
더불어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광주출신 한강



작가의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21일에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22명이 독일로 '책으로 세계로' 유럽문화 여행을 떠난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9박 11일 일정으로 세계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문학적 영감을 받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찾아 로마대학교, 나폴리동양대학교, 괴테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등에서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나 교류한다. 또 한국어 및 한국문화포럼을 운영하고 학생주도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로 만나 5·18 강연 등도 진행한다.  
또 20일에는 중학생 30명이 5박 6일 동안 베트남

으로 '글로벌 리더 다가지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을 떠난다. 다문화학생 부모님의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유적지를 탐방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  
21일에는 중·고등학생 30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를 둘러보는 '국외 역사문화 현장 체험'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학생들은 독립운동가와 고려인의 역사를 살펴보고 문화교류를 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보고 배운 경험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광주정신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호남대-中 산동성 제녕기술대 '중외합작' 패션드레이핑 수업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처장 손완이)와 패션디자인학과(학과장 장소영)는 최근 중국 산동성 제녕직업기술대학과 '2024학년도 중외합작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중국 제녕직업기술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에 중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작 프로그램에서는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최경희 교수(퇴임)가 제녕직업기술대학에 파견되어 '패션드레이핑' 집중 수업을 진행, 열정적인 강의로 현지 학생들의 높은 집중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합작 프로그램은 추후 제녕직업기술대학에 장기 교수를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남대로의 학생 유학 의욕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끊임 없이 모색하고 있다.  
제녕직업기술대학은 1979년에 설립된 산동성 소속 공립대학으로, 70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고 22,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한편 호남대학교 국제교류처는 현재 제녕직업기술대학, 산동경제무역직업대학, 허북미술대학교와 중외합작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현지 대학교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전공의 중외합작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미국 어학캠프' 통해 글로벌 교류 강화

김동진 총장, 자매결연 웨스턴일리노이대 총장과 교류 확대 논의  
광주대학교가 '미국 어학 캠프'를 통해 글로벌 교류 강화에 나섰다.  
21일 광주대에 따르면 김동진 총장이 지난 18일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Western Illinois University)를 방문해 크리스티 민드럽(Kristi Mindrup) 총장과 양 대학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가 광주대를 찾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 후, 30년 이상 이어진 교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 합의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두 총장은 이날 만나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광주대학교는 1983년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2000년부터 매년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여름 캠프를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과 전공 관련 학업 체험, 홈스테이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여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현지 학생 및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학교는 현재 예년에 비해 유학생 수가 약 70% 증가하는 등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ROTC 후보생과 광주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챌린지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활발한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지역기업과 탄소중립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인력 양성 등 선순환 구조 확립

**G&J RIP**  
지역미래 이끄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4)운송기기



특히, 53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 미래운송기기사업단 중심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대한조선이 대학의 연구기술을 접목해 건조한 원유운반선을 해외에서 수주하는 결실을 맺었다. 대한조선은 지난 6월 3일과 4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들과 그리스 유명 선사인 아틀라스 선사(ATLAS MARITIME)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원유운반선 1척과 2척을 각각 수주했다.

### 그리스 선사 등과 3600억 수주 지역기업과 협업 연구성과 확산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미래운송기기육성사업단(단장·심천식 국립목포대 교수·사진)은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친환경 선박과 HSE 및 ICT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해 '기술 사업화, 인력 양성, 연구개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오던 이사업은 1단계(2020-2022년) 기간 동안 공모형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기업을 유치하고,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1차년도에는 산학융합 R&D를 선도하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2차년도에는 기술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3차년도에는 연속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완성도 높은 토털 패키지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2023-2024년)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더욱 활성화하고, 롤링플랜을 적용해 연구개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결과 총 34편의 논문과 17건의

아틀라스 선사(ATLAS MARITIME)의 2척은 지난 5월 건조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이번에 본 계약을 성사했다. 이 선박들은 향후 LNG 연료 추진선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탈황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s)가 적용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 3척에 대한 총 계약 규모는 약 2억 7000만 달러(3600억 원) 수준이다.  
이 사업은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실무형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산학연관 협력 과제를 통해 지역 혁신을 위한 기술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에는 선박 블록 제조 분야에 스마트 제조기술을 접목한 자동운용 장비 개발과 광주전남지역의 친환경 선박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여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미래운송기기육성사업단 심천식 단장은 "탄소중립 친환경 선박 연구 사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미래운송기기육성사업단이 글로벌 산·학·연·관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제공>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